		<h1 style="margin: 0;">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h1>				
<b>인적사항</b>	이름			학번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연락처			E-Mail		
	파견국가	일본 도쿄		파견학교명	와세다 대학교	
	파견시기	2025.03.25 - 2025.07.25		파견 기간	6개월 / 1년	
<b>파견정보</b>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대면) 日本の文学論	일본 고대 문학과 나라/헤이안 시대 작품을 통해 '문학'이란 무엇인가 탐구하는 수업			
		(대면) 日本文学概論 1	일본 고전문학이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읽히고 재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수업			
		(대면) 日本語日本文学特論 1	일본 고전 필사본과 판본의 기초 지식 습득하여 문헌 보고서 작성 방법/서지학 개념 정립			
		(대면) 日本史演習 7 A(近現代)	일본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문헌읽기/토론 및 <ずし字 해독 훈련			
		(온라인) くずし字を学ぶ	일본 옛 문헌 해독을 위한 <ずし字 입문 온라인 강의			
		(온라인) 日本文学研究 1(上代文学)	일본 신화 '古事記'을 해석하며 천황 통치의 정당성 수립 및 大和국가 성립 개념 습득			
		(온라인) 日本文学史 2(中古文学)	나라/헤이안 시대 일본 문학사를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근대, 현대의 문학사 비교 및 재정립			
<b>체험 수기</b>	<p><b>1. 파견대학</b></p> <p><b>1. 파견 대학 소개</b></p> <p>와세다 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사립 대학으로 도쿄 신주쿠 부근에 위치해 있다.</p> <p>사실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는 채로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 이후 학과(학부) 고민으로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일본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육하며 연구를 한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다. 그래서 '문학부'로 결정하게 됐고 수업은 일본 문학은 물론, 일본어학, 서양문학, 번역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대면강의, 세미나 수업,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하게 있어서 기호나 연구 취지에 맞게 선택하면 될 듯 하다. 참고로 와세다 대학교는 본 캠퍼스, 토야마 캠퍼스, 니시 캠퍼스가 있는데 인문대학은 토야마 캠퍼스에 있다.</p>					
	<p><b>2. 파견 전 절차</b></p> <p>교환학생 신청(24/10/2)부터 일본 입국(25/3/25), 첫 수업(25/4/14)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p> <p>① 10월 1주_교환학생 신청</p> <p>2024년 10월 초에 국제협력팀 홈페이지에 교환학생 파견 글이 올라왔다. 교환 대학 리스트에는 와세다 대학, 나가사키외국어 대학이 있었다. 학교를 선정 후 인적사항/성적증명서 등을 파일 업로드 한다. 임시저장 형식으로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하고 최종 제출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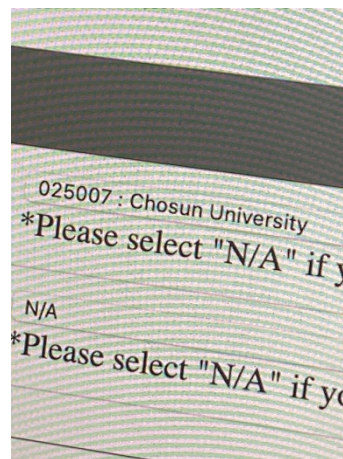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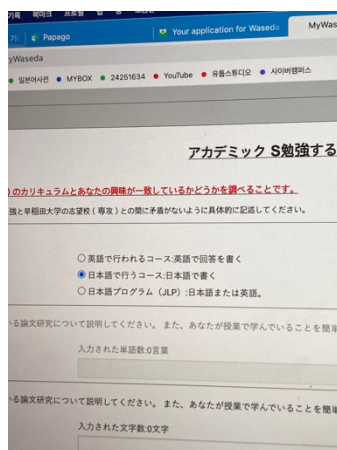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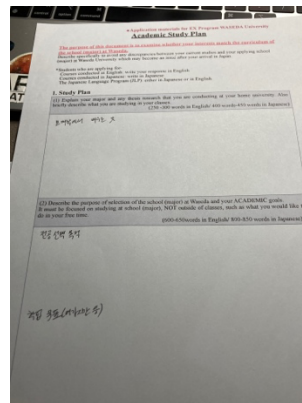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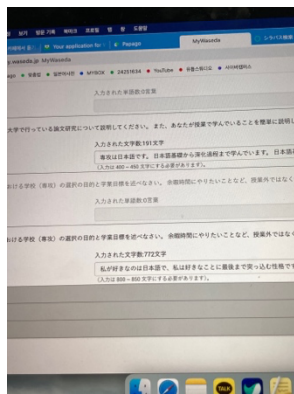
② 10월 2~3주\_학과장 추천서, 합격발표

기본 서류를 제출한 후, 학과장 추천서 작성을 교수님께 의뢰했다. 문자, 전화 연락을 고민했지만 문자로 해야 마음이 편해서 문자로 연락 드렸다. 교수님께서서는 추천서에 포함될 항목들 (대인 관계, 성격, 장점, 유학 중 하고 싶은 일, 대학원 진학 희망 여부 등)을 보내주셨고, 해당 내용에 맞춰 작성하여 메일회신. 며칠 뒤, 작성된 추천서를 받아 국제협력팀 이메일 제출했다. 기본 서류나 학과장 추천서 등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협력팀으로부터 메일이 오며, 해당 내용에 따라 다시 회신하면 된다.

③ 10월 4주\_와세다 대학 온라인 폼 작성 및 메일 작업

합격자 발표/사전 교육과 함께 조선대학교에서의 절차는 끝났다. 이제 와세다 대학이 요구하는 항목에 답하면 된다. 메일로 알려주는 링크 접속 후 온라인 폼으로 작성하는데 입시지원 기능이 없어서 정보가 모두 모여져야 최종제출할 수 있었다. 인적사항 같이 바로 작성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학습계획서 등 시간이 걸리는 항목도 있어서 불편하고 부담되긴 했다. 정보 입력 항목은 최소 80개는 넘었던 걸로 기억하며 모든 글자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입한다.

당시 와세다 대학의 제출기한은 11/20였지만 혹시 모르니 국제협력팀에는 11/13까지 제출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래는 와세다 대학 온라인 폼 작성 관련 사진이다.



④ 1월 4주\_와세다 대학에서 정식 합격 메일

11/20 와세다 대학 온라인 폼 최종 제출 후 몇 개월 뒤 2025년 1월 27일에 최종합격 메일이 왔고, 2월 14일 합격증명서(COA)가 PDF 형식으로 왔다.

⑤ 2월 3주\_입국자격증명서(COE), 비자신청

COE는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와세다 대학에서 직접 발행하여 메일로 전해준다. 이때 교환학생 입장에서 따로 할 것은 없고 수시로 메일 확인하며 기다리면 된다. COE는 2월 21일에 메일로 받았고 다음날 22일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사로 우편 발송 했다.

여기서 비자 신청은 개인신청이 안 되고, 일본 대사관 사이트에서 비자 발급 대행사 리스트 확인 후 대행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실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서 나는 가장 첫 번째 있는 곳에서 비자신청 문의하여 발급했다.

⑥ 비자 신청 이후

비자 신청 후, 서울에 있는 비자 대행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여권에 부착된 비자와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이제 정말 일본으로 출국할 일만 남아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챙기며 필요한 물품도 준비했다. 출국날은 본인 자유며 나는 개강 3주 전인 3/25에 출국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 수강신청/학점/시간표 개념 차이

먼저, 일본에서의 수강신청 방식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 대학에서는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지만, 와세다 대학교는 추첨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빨리 신청해야 한다’ 는 개념은 없고,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면 상태가 ‘신청 중(申請中)’ 으로 표시된다.

이후 추첨에서 당첨되면 ‘결정(決定)’ 상태로 바뀐다. 복불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당첨된다고 들었다. 혹시 몰라 아래 사진처럼 10개의 강의를 신청했는데, 모두 당첨되었고 정정 기간에 조정하여 대면 수업 4개, 온라인 수업 3개로 최종 확정했다.

수강신청은 1차 신청, 2차 신청, 3차 신청이 있는데 1차 추첨에서 떨어지면 2차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 3차 신청은 한국의 ‘정정기간’ 과 비슷한 개념으로 수정 후 최종 결정하는 기간이다. 수업 사이에 이동시간이나 건물 거리 등은 조선대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간표 계획으로 하면 된다.



두 번째로, 학점은 각 강의마다 기본 2학점이었고 최종으로 결정된 것은 2학점 X 7개 수업=14 학점이었다. 일본/한국 대학 간의 학점 환산 차이로 조선대학교 학점 반영이 많이 안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들으라고 하셨지만 월세 납부, 생활비 등으로 아르바이트, 각 수업의 과제, 시험기간 등으로 와세다 기준 14학점은 부담 됐던 것은 사실이다.

교환학생으로 인한 학점 부족으로 제때 졸업 못하거나, 추가 학기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4학점을 들었지만, 혹시 학점/졸업 등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14학점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겠다. 교환학생 가기 전 자신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수업시간은 아래 사진과 같다. 조선대학교의 CU타임이나 점심시간 같은 개념은 없으며 본인의 시간표 계획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내가 들었던 대면 수업 4개 모두 휴게시간 없이 1시간 40분 수업했다.아래는 2025년 와세다 대학 수업 시간이다.

### 2025年度 授業時間

時限	授業時間		
	全体	経営管理研究科	芸術学校
1時限	8:50~10:30		
2時限	10:40~12:20		
3時限	13:10~14:50		
4時限	15:05~16:45		
5時限	17:00~18:40		
6時限	18:55~20:35	18:30~20:10	18:10~19:50
7時限	20:45~21:35 (50分)	20:20~22:00 (100分)	19:55~21:35 (100分)

#### -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포털에 와세다 전용 메일로 로그인한 후 학부별 강의 목록을 검색하고 확인한다. 강의계획서를 확인하며 본인이 수강희망 강의 등 시간표를 계획한다. 몇 번이고 수정 가능하며 정정기간에도 수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메일로 와세다 메일 가입하라고 연락 오고 이때 만든 로그인 정보로 인강 듣고, 성적을 확인하거나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는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 - 기숙사

기숙사 신청은 와세다 대학에서 보내주는 메일 지시대로 옵션 설정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을 포함해 함께 교환학생으로 간 동기도 기숙사 배정에서 탈락했다는 메일과 함께 와세다대학교와 제휴된 주거 정보 사이트(unilife) 링크를 받았다. 이를 이용해 각자 집을 구했다.

그래서 기숙사 입주 관련 자세한 정보와 기숙사 사진은 없다. 기숙사가 아닌 일반 집을 구할 때는 unilife 측과 메일 작업과 영상통화가 많았다. (친권자 동의서, 보증회사신청서, 초기계약서 등)

- 자취

와세다 기숙사 떨어져서 바로 unilife와 연락하여 집을 구했다. 집 위치는 와세다 대학에서 1시간, 신주쿠에서 40분 거리의 '고다이라이시' 이다. 집 조건은 지상 4층, 1K, 19.98m<sup>2</sup>, 6평, 8帖이다. 가구 기본 옵션은 에어컨, 옷장, 침대, 인터폰, 세탁기, 건조기. 월세는 관리비 포함 64,500엔(약 65만원), 광열비 비포함(개인계약)이었다.

월세는 카드 결제, 교통카드 납부, 편의점에서 바코드결제 등 다양했고, 나는 편의점 현금(바코드)결제로 납부했다. 아래는 자취방 사진이다.



아래는 맨션 1층에서 나가면 바로 보이는 전철 건널목이다.



아래는 맨션 1층에 있는 우편함과 집 근처 사진이다.



####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 sykim21@chosun.ac.kr

- 와세다 대학교

Waseda Global Gat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CIE)

> Chie YAMABE / c.yamabe2@kurenai.waseda.jp

> ex-in-cie / ex-in-cie@list.waseda.jp

## II.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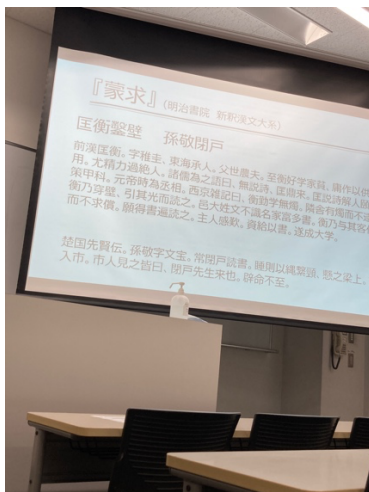
###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日本の文学論(일본의 문학론)

-일본 고대 문학과 나라/헤이안 시대 작품을 통해 '문학'이란 무엇인가 탐구하는 수업

이 수업의 가장 큰 주제: 문학이란, 일본문학이란 무엇인가?

일본 문학 작품에서 문학의 개념/정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조선, 중국(당/송나라), 발해 등 한국/중국/일본의 관계에서 문학을 교류하는 역사적 기록에서 수업을 하셔서 매우 흥미롭고 세계관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 『日本書紀』神代紀上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天地未剖、陰陽不分、渾沌如雞子、溟涬而含牙。及其清陽者、薄靡而為天、重濁者、淹滯而為地、精妙之合搏易、重濁之凝竭難。故天先成而地後定。然後神聖生其中焉。

故曰、開闢之初、洲壤浮漂、譬猶游魚之浮水上也。于時天地之中生一物、狀如葦牙、便化為神。号国常立尊。……

唐·歐陽詢等撰『藝文類聚』卷一 天部上·天

徐贍三五曆紀曰、天地混沌、如雞子、盤古生其中、方八千歲、天地開闢、陽清為天、陰濁為地、盤古在其中、一日九變、神於天、靈於地、天日高一丈、地日厚一丈、盤古日長一丈、如此方八千歲、天數極高、地數極深、盤古極長。後乃有三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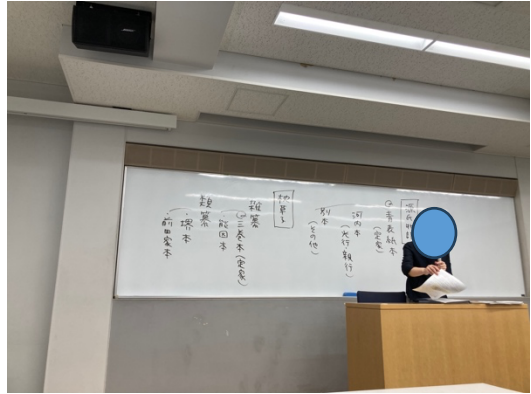
宋·李昉等撰『太平御覽』卷一·天部一「元氣·太易·太初·太始·太素·太極·天部上」

日本文学概論 1 (일본문학개론1)

-일본 고전문학이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읽히고 재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수업

일본 고전 문학(특히 겐지모노가타리)을 현대일본어로 번역할 때 한계점과 창조성, 주석의 의미, 외국문학과의 교류, 일본 문학이 외국어로 번역될 때 바른 번역/오역에 의한 영향 등 고전문학이 어떻게 시대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고 변용/사용 되었는지를 파악한다. 궁극적으로는 '고전이란 무엇인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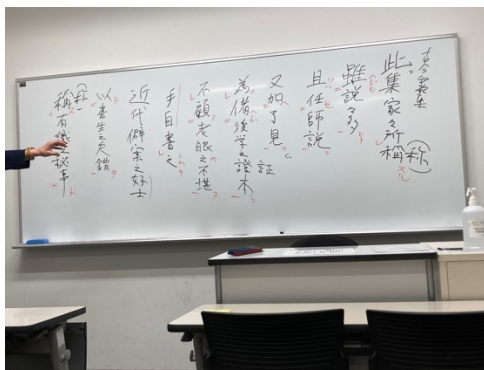
『源氏物語』(1000년경)의成立は、平安朝の中期、醍醐天皇の御代(817-824)に属する。この頃、藤原氏の権力が隆々として、朝廷の政治は藤原氏の専横に陥つてゐた。この政治的状況は、『源氏物語』の成立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この頃、藤原氏の権力が隆々として、朝廷の政治は藤原氏の専横に陥つてゐた。この政治的状況は、『源氏物語』の成立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この頃、藤原氏の権力が隆々として、朝廷の政治は藤原氏の専横に陥つてゐた。この政治的状況は、『源氏物語』の成立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



日本語日本文学特論 1 (일본어일본문학특론1)

-일본 고전 필사본과 판본의 기초 지식 습득하여 문헌 보고서 작성 방법/서지학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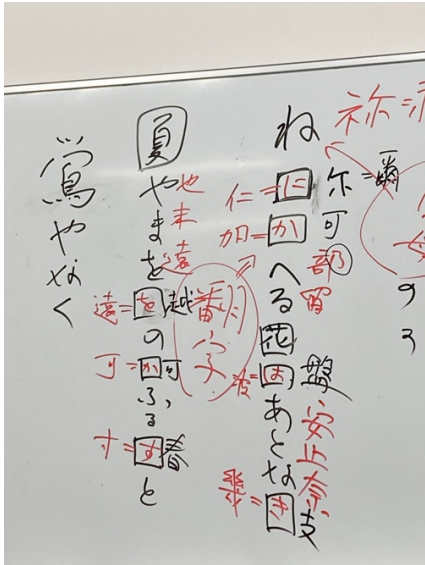
일본 고전 필사본/판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서지학이 기반인 수업. 일본 고전이라면 <ずし字 (흘림체)가 빠질 수 없어서 매 주마다 흘림체 자료를 가져오셔서 판서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독,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 주셨다. 난 메모메모메모 밖에 할 수 없었다... 아래 사진은 일본 와카 문학 '고금와가집'의 서문이다.



早稲田大学図書館蔵『古今和歌集』(〜04\_00080) 奥書部分



아래 사진은 매주 했던 흘림체 해독/해석 및 서지학 관련 노트 정리한 것이다.



古典籍、写本や版本調査方法 ..... 日本語日本文学特論 I

- 1. 보고서 날짜
- 2. 소장기관
- 3.装订 (ex. 装綴)
- 4. 表紙寸本
- 5. 表紙□素材、色、模様等
- 6. 外題 (ex. 중앙에 題簽이 있고 000)
- 7. 表紙の見返し (ex. 全てなっている)
- 8. 丁枚 (遊び紙、墨付き等)
- 9. 1面: 10行、文字の高さ、字高は何センチ等
- 10. 歌等はど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か。(冒頭下りなど)
- 11. 蔵書印 확인 - 単角、方形、インク色、墨付き面にありなど
- 12. 奥書 확인

日本史演習 7 A(近現代) (일본사강습 7A 근현대)

-일본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문헌읽기/토론 및 <ずし字 해독 훈련

이 수업은 1, 2부로 나뉜다.

수업 1부: 일본 근현대사 서적(大隈重信 - 民意と統治の相克; 오오쿠마 시게노부-민과의 통치의 상극)을 읽으면서 일본사를 배운다. 와세다 대학 설립자이며 일본 근현대 정치/역사/근대화에 큰 역할을 준 인물이다. 책을 읽어오는 게 과제이며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킨다. 그 챕터의 요약이나 질문거리를 물어보신다.

수업 2부: <ずし字(흘림체) 해독 및 토론

일본사/일본문헌에서 ‘<ずし字(흘림체) 없이는 공부/연구가 어렵다. 일본어는 한자에서 온 글자로 일본의 역사나 시대 흐름에 맞게 간략화 된 것이 ‘히라가나, 가타가나’ 이다.

흘림체를 간단히 말하면 이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쓰기 이전에 일본인이 사용하고 대중적으로 쓴 ‘서체의 한 종류’ 라고 할 수 있다. 흘림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의문이지만,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흘림체라고 하겠다.

**흘림체와 일본문학, 일본 근현대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일본은 나라시대(서력710년)부터 흘림체로 공식문서, 서한, 그리고 문학작품을 썼다. 흘림체를 모르면 일본 문학/일본사를 공부도, 연구도 할 수 없어서 문학부에 흘림체 강의를 많았다.

한글의 ㄱㄴㄷ도 모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글자인지도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된 어려운 논문/서적을 읽고 요약+토론+다른 수업 과제+알바까지 하는 것과 비슷한 강도랄까....

정말 너무 매우 아주 많이!!! 어렵고 멘탈 흔들리고 힘들었다.

이어서 수업 1부, 2부 관련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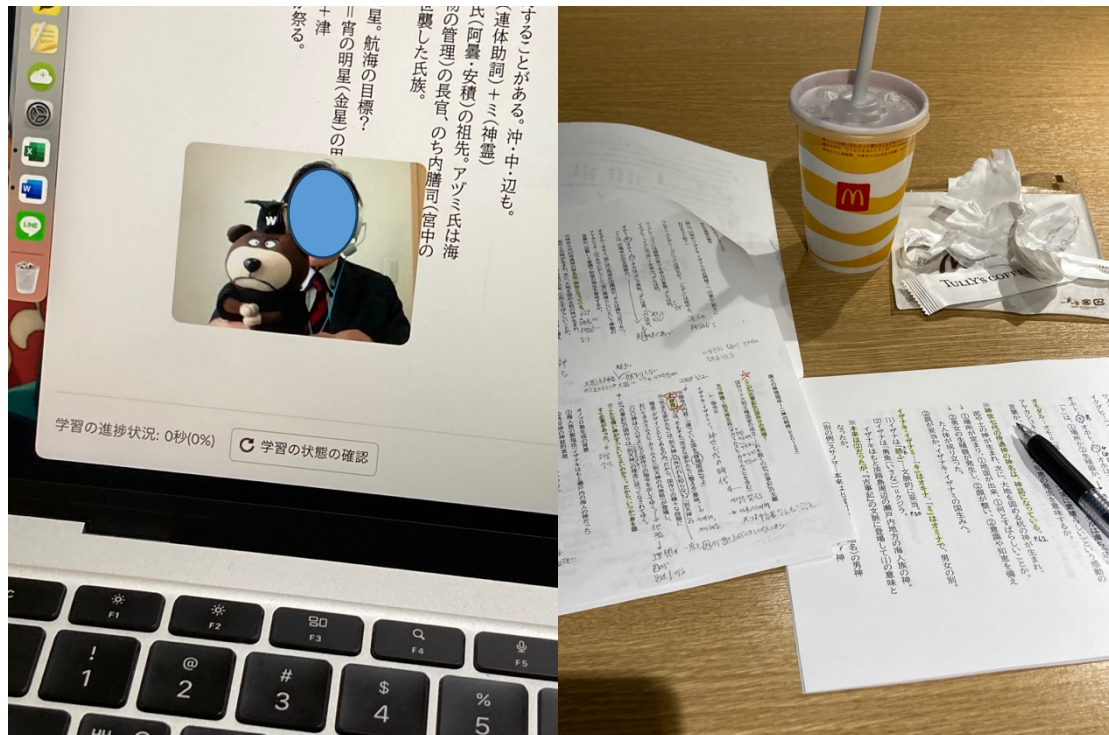
日本文学研究1 (上代文学) (일본문학연구1 상대문학)

-일본 신화 '古事記'을 해석하며 천황 통치의 정당성 수립 및 大和국가 성립 개념 습득

일본 건국신화인 '古事記' 원문과 현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비교하며 읽고, 교수님께서 해석/해독을 하신다. 당시(서력 700년대) 일본은 나라의 정통성과 황실의 기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사 기록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천황이었던 천무천황(天武天皇)이 문학자/관리였던 오노 야스마로(太安万侶)에게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신화/전설/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편찬된 것이 '古事記(고사기)'이다.



>>> 와세다 대학교 굿즈인 넥타이, 곰 인형을 들고 수업 하셨다ㅋㅋㅋㅋ 귀여우시다.

日本文学史2 (中古文学) (일본문학사2 중고문학)

-나라/헤이안 시대 일본 문학사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근대, 현대의 문학사 비교 및 재정립

나라/헤이안 시대(서력 710년 ~ 1185년)는 국가에 전쟁 등이 없어 비교적 평온했다. 그래서 대중 문화가 발달됐고, 특히 귀족문화(문학)와 여성 문학이 풍부했다고 볼 수 있다.

나라/헤이안 시대의 문학과 연대기, 흐름, 중요한 개념 등을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학'의 의미와 당시의 문학의 의미를 비교하고 고찰하는 수업이다

- 추천강의

1. 日本史演習7 A(近現代) (일본사강습 7A 근현대)

이유: 7개 수업 중 가장 어려웠고, 도전정신을 불타오르게 한 수업이어서 추천한다.

멘탈이 흔들리고 너무 힘들었지만, 흘림체의 매력에 빠진 건지 광기인지 나름 재미있었다. 읽기 어려운 거라서 연구하는 책이나 학자가 많이 없는데 유니크해서 흥미가 생긴건가 싶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일반적인 언어와 달리 또 다른 문자, 언어가 생긴 느낌이랄까? 하하하..

## 2. 외국어 습득 정도

외국어 습득 정도: ●●●●●●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환경이 일본어라서 '일본어 자체를' 습득하기엔 좋았다.

외국어 향상 정도: ○○○●●

교환학생 가기 전부터 일상 회화는 가능했다. 이번 교환학생 목표/우선순위가 '외국어 향상'이 아니어서 기존 일본어 실력 그대로or아주 살짝 향상 후 귀국한 듯 하다. 여기서 기존 일본어 실력이 가늠이 안 가는 이를 위해 자격증 등으로 굳이 기준을 내린다면 경어/일상/비즈니스 회화 가능, 면접/대학 수업 토론 참여 가능, JLPT N1 매년 갱신중, JPT 890 정도이다. (챗GPT에 따르면 TOEIC으로 환산시 약 880~920점 수준)

이번 교환학생의 큰 목표는 일본어 회화 실력 향상이 아니라 '다시 일본 생활' 이었다.

몇 년 전 오사카에서 1년 호텔인턴으로 일하고 한국 돌아와서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는 등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와중 '와세다 교환학생' 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교환학생에서 일본어 실력 향상은 우선순위에서 2위였다고 해야할까?

물론, 초반에는 일부러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 않거나, 일본인 친구 사귀어서 일본어로 대화하고 싶었고, 가족과 한국어로 하는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수업에서 모르는 어휘/표현이 있으면 빠짐 없이 모조리 메모하고 일본인의 대화/전철/병원/마트 등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병적으로 메모하곤 했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커졌고, 일본어 실력 이외에 '학부 공부' 에 비중을 뒀다.

## 3. 학습 방법

소위 말하는 노가다/아날로그식/깜지 등 요령 없이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특별한 건 없고 수업 자료를 몇 번이고 복습하고 암기하는 정도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일본어 어휘/문학개념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 검색하는 동안은 교수님에 말이 들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모르는 어휘/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7개 과목 중 6개 과목은 무난하게 공부했다. 나머지 1개 수업, 흘림체! 이걸 공부하다가 모르면 교수님께 라인(메신저)로 물어봤고, 하루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6번까지 물어봤다. 웬지 교수님께 죄송하다.

***학부 공부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둔 것은 흘림체이다.***

다른 수업/수업자료는 일단 읽히고, 읽을 수 있고 사전 찾으면 되는 정도여서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흘림체는 사전도 없을 뿐더러 물어볼 수 있는 건 교수님 뿐이다. 진도를 놓치면 따라갈 수 없고 그만 두거나 포기하면 웬지 나에게 지는 것 같고.

'너 나에게 잘 걸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광기로 공부했다.

흘림체 자료 10장이 중간고사였는데, 다른 수업 중간고사는 거의 공부 안하고 3주 동안 흘림체 자료 10장만을 집중해서 공부했다. 다른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도 글자가 읽히니까' 글자가 읽히니까 시험 1-2일 전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흘림체 중간/기말 때는 다른 수업 공부는 올스탑. 광주 사투리로 '나도 참 징하다'

## III. 생활

###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 필요 물품

해외 여행 짐 챙기는 것처럼 가져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비자/여권/COE(자격증명서) 사본: 필수필수!!!!

한국 유심 문자 수신 설정: 여권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국 핸드폰을 완전 정지하지 말고, 정지는 하되 인증번호 등 문자 수신은 가능한 옵션으로 설정하는 게 정말 추천한다.  
바닐라라떼: 일본 카페는 바닐라 라떼라는 메뉴가 없다. 단 커피라고 하면 카페라떼에 시럽 정도여서, 하지만 일본 커피 자체가 써서 만족되지는 않는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닐라 파우더 등 비슷한 맛이 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한다.

도장: 일본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계약 등 본인 도장 지참하라고 함

증명사진: 일본에서도 촬영 가능하나 사진 4장에 만원 꼴로 가성비 좋지 않음

트래블카드: 원화를 엔화로 변환하여 일본 ATM에서 출금 가능함. 본인은 하나트래블카드 선택  
안경닦기: 평소 렌즈+안경을 쓰는데, 일본에는 한국의 일반적인 안경닦기 천이 없음...

비상약: 일본에 여러 약이 있지만 원래 쓰던 약이 있다면 지참하기! (생리통 약 등)

포켓 와이파이: 일본에서 와이파이 계약 가능하나 설치까지 느리고 가성비 좋지 않아서, 본인은 일본 가기 전 '아이비디오' 에서 6개월 장기대여(약21만원)하여 사용했다.

보조배터리: 일본의 카페는 충전코드를 따로 두지 않고, 카운터석에만 비치해두는데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기 때문에 좌석 차지가 너무 어렵다. 정말 보조배터리는 필수다

- 현지 물가 수준

일본 물가의 전체적인 총평은 '생각보다 저렴함' 이다.

마트, 다이소 등에서 식재료,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는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백화점, 쇼핑몰, 외식, 문화생활, 패션 이라는 카테고리로 간다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비싸는 경우도 있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자주갔던 음식점

>사이제리아: 일본식 이탈리아 레스토랑. 푸딩 200엔, 스테이크 4-500엔, 파스타 300엔, 가장 비싼 메뉴가 세금 포함 5-600엔 정도다. 친구와 8개 정도 메뉴를 주문했는데 1인 1500엔 정도였다. 와인도 천엔 이내로 마실 수 있어서 일본에서 인기있는 음식점이다.

>마츠야/야요이켄: 일본식 김밥천국. 천엔 이하의 메뉴가 대부분이고 집밥/정식 느낌의 일본식을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음.

>맥도날드: 한국에도 있는 가게지만 체감상 일본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맥모닝(버거+음료)도 4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

>Cotti coffee: 바닐라 라떼가 있는 내가 아는 선에서 유일한! 카페 체인점이다.

- 의료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너무 비싸다.

일본 간 지 얼마 안 돼서 감기에 걸렸는데 보험 받았는데도 진료비+약 값으로 48,600원 정도가 나왔다. 감기 하나로 이 정도라면 더 심각하게 아플 경우는 아마 더 비싸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은 드럭스토어가 발달 되어서 여기에서 식재료, 생활용품,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각종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드럭스토어는 체감상 스기약국이 가장 저렴한듯.

- 은행/결제

몇 년 전 오사카에서 살 때 사용했던 SMBC 은행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다. 1학기 단기 유학생으로 SMBC의 큰 장점은 잘 모르겠지만, 뭐 사용할 만하다. 하지만 현금카드 발급하는데 49일 걸렸다. 공공기관이 늦은 것은 일본 공통이라고 해야할까, 그래서 좋다/안 좋다/추천한다 등 별 생각 없다. 일본 유학생/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면 비교적 계좌 개설이 쉬운 유초은행을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더라.

일본에서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체크/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현금이나 한국에서 가져온 체크카드를 사용하곤 한다. 현금 사용이 불편하다면 교통카드인 파스모, 스이카 등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가게에서 결제할 때 체크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은 있다. 나는 교환학생 4개월 동안 현금 결제+교통카드 결제를 사용했다.

- 교통

다들 일본의 교통비는 비싸다고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집 근처 역에서 학교 근처 역까지 정기권을 사용하여 1개월 3500엔으로 사용했다. 정기권 외의 역을 가면 추가 금액이 교통카드에서 빠져나가니 최소 천엔 정도는 충전 해놓기.

>정기권 구매 방법

아무 역 가서 정기권 구매는 못한다. 학생이라면 보통 학생증 뒤에 집에서 학교까지 역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역 이름을 쓰고 역무원에게 문의하면 그때 정기권 구매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해준다. 정기권 금액은 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나는 1개월 3500엔이었다. 학교 이외에 개인적으로 전철을 몇 번 탔으니 한 달 교통비는 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 통신

와이파이는 한국에서 미리 결제했으니, 핸드폰 통신비만 하면 데이터 30기가(이월가능), 음성통화 10분 이내 무료, 데이터 소진이 저속 무제한 조건으로 1개월 3-4000엔이었다.

통신사는 UQ모바일. 아무 빅카메라 가서 핸드폰 개통했다. 데이터 속도는 적당히 좋았지만, 사람이 모이는 전철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조금 느렸다. 그래도 뭐 쓸 만 했다.

- 패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면 어느 나라든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제외하고 자주 갔던 곳은 구제 옷 가게나, 시마무라 패션센터다.

시마무라 패션센터는 일본에서 주부들의 유니클로라고 불리는 곳이다. 남성.여성의 속옷부터 외출복, 잠옷,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잡화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주부라고 한들 젊은 사람들도 방문하곤 한다. 옷 대충 입고 오면 우스갯소리로 시마무라에서 샀냐~? 라는 농담도 있지만, 솔직히 여기서 잘 고르면 괜찮은 옷, 잡화 등을 구매할 수 있어서 나는 좋았다.

그 밖에 지유, 유니클로, 무인양품에서 옷을 구매하곤 했다. 지유 1-20대, 유니클로 30대 옷이 많아서 본인 취향대로, 상황에 따라 가면 될 듯하다. 한국 유니클로/무인양품 옷 보다 저렴해서 갈 만하다.

- 영화관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관은 TOHO시네마다. 영화관에 들어가면 개봉 영화에 대한 굿즈샵이 있고, 한국과 비슷하게 음식점, 카페 등이 있다. 매주 수요일 TOHO시네마데이라고 하여 영화표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1300엔 정도로 기억한다. 교환학생 기간 중 미션임파서블을 봤다. 자막이 일본어로 나오는데 독해 시험 보는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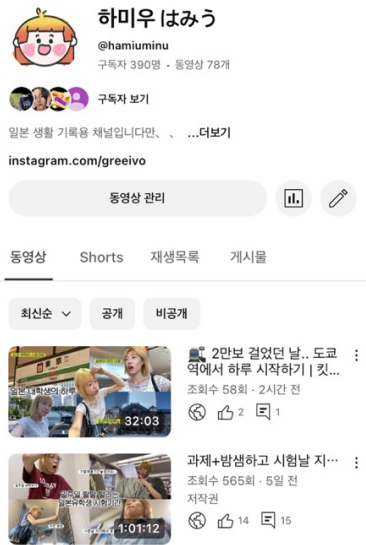
###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 >유튜브 활동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한 건 오사카에 살 때 가족에게 근황을 보내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간간히 영상을 찍다가 이번 교환학생 가기 전 '유튜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25.07.30 기준으로 구독자 390명, 영상 78개를 달성했다. 일본 유학생 일상을 테마로 주 1-2회 영상을 업로드 했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과정은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렵진 않았다. '블로' 라는 앱으로 편집하고 영상 추출 후 유튜브에 올리고, 썸네일 만든 후, 제목 정해서 예약을 걸어두거나 바로 공개하면 끝!!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hamiuminu>



#### >카페/도서관에서 공부/작업

커피도 좋아하지만 혼자 카페/도서관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매우 좋아한다.

도서관은 학교 중앙도서관이나 집 근처 구립/시립 도서관, 대형 서점 안에 있는 북카페/도서관 등 여러 곳을 검색하여 방문했다. 보통 과제, 유튜브 영상 편집, 일기, 영화보기, 공부 등을 했다. 집중이 안 되는 경우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거나 했다.



#### 4. 체류기간 소요 경비

체류기간: 2025년 1학기 (25/3/25 출국 ~ 25/7/25 귀국, 4개월)

구분	경비	비고
출국 전 비용	₩ 3,815,938	집 초기계약금 200만원 포함
보험료	₩ 356,870	보험 기간 250325 ~ 260325
월세	¥ 64,830	
광열비(전기가스수도)	¥ 6,200 ±	
와이파이 요금	₩ 210,000	아이비디오에서 출국 전 장기대여
핸드폰 요금	¥ 4,000 ±	
개인 생활비	¥ 600,000 ±	
교통 정기권(집-학교)	¥ 3,500	정기권 외의 역은 그때마다 현금결제
왕복 비행기	₩ 600,000	조선대학교 장학금으로 결제
총 비용 (월세미포함)	¥ 497,204	총 비용에서 월세 구분 이유 : 기숙사 거주 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총 비용 (월세포함)	¥ 781,174	

- 1개월 단위
- 일시불 단위

####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성과라고 하면 일본어 실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학업- 2. 외국어 습득 정도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외국어 향상을 위해 교환학생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잡으리라' 마인드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성과는 대학원 진학 고민에 대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조선대학교 입학(편입) 전으로 가야한다. 편입 전에도 일본어와 동거동락했던 나로서는, 일본어에 대해 더이상 어려운 것이 없었다. 또한 도전정신이나, 일본어 관련해서 직업/커리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불분명했다. 일본어 과외 하면서 용돈 벌거나 일본어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일본 관련 미디어를 보는 정도.

도전정신이나 일본어에 대한 욕구가 희미해진 이유는 '최소한 내가 아는 선에서 일본어를 마스터 했다' 라는 생각이었다. 몇 년 전 오사카 체류 경험이 있고, 일본어 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이미 몇 년 전에 합격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갱신 중이며, 일상/비즈니스 회화도 할 수 있고, 취미로 일본어 번역도 하고 있었다. 정녕 이게 끝인가? 뭔가 더 있을 텐데... 일본어 관련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더 깊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며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 의문을 풀기위해 전공을 호텔관광에서 일본어로 바꾸고 조선대학교에 편입했다. 여러 수업에서 유독 흥미가 생겼던 수업은 4학년 수업인 일본문에감상이었다. 한 학기 동안 4-5개의 일본 문학을 원서로 읽고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감상문을 발표하는 수업이었다.

### **일본 문학에 흥미가 생긴 이유**

다른 수업에 비해 어려운 일본어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일본어에 대한 지루함 표출 가능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지적호기심 해소' 에 대한 흥미인지 '일본문학' 에 대한 흥미인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와세다 교환학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교수님과 상담하면서 문학부를 고르게 된 것이다. 교환학생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본 문학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다. 역시 재밌다. 흥미롭다! 문학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더 깊이 알고싶고 궁금하다면 대학원 진학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일본어라는 흥미 하나로 대학원까지?? 너무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다. 문학부로 가는 겸 이번 목표는 '일본 문학의 관심가는 작가/시대를 찾는 것' 으로 결론이 나왔다. 한 학기간 문학부 수업 7개를 듣고, 좋은 기회로 문학부 대학원생을 만나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학부 수업 등 현실적으로 너무 바쁜 나머지 문학 작품도 많이 못 읽어서 좋아하는 일본작품/작가/시대는 못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지금 일본 문학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는 것

일본 문학이라면 무슨 전공으로 갈지, 방향을 틀어 전부터 고민하던 통번역대학원 진학일지 모르겠지만, 고작 흥미 하나로 대학원을 간다고? 에서 '대학원 진학' 이라는 결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진로의 여러 고민을 나름 정리하게 해 준 것이 이번 교환학생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많은 인연들**

먼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한국인 친구는 1999년 생으로 동갑이고, 같은 여자,

같은 맨션에 심지어 같은 층에 산다. 이 정도면 엄청난 우연이다. 그래서 퇴근 후 수다 떨면서 저녁을 먹거나, 시간 있으면 연락해서 동네 산책이나 마트를 가곤 했다. 친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일본 유학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만날 가능성이 낮을 텐데, 일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심심하면 너 지금 집?이라며 라인하는 이런 동네 친구 너무 좋다!

그리고 흘림체 수업이 소수 강의여서 각자 자기소개를 했고 내가 한국인임을 밝혔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수업 듣는 학생들과 인스타그램 교환/라인 친구 추가를 했다. 이 중에 한 명은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어서 나를 보는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개인적으로 만난 친구는 없지만, 일단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일본인 친구가 있다. 한국의 화장/패션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무 반갑게 대해줘서, 그 이후로 2번 정도 사석에서 만났다. 그 친구도 대학생이어서 학교/수업/연애 등 여느 20대 같은 얘기를 하며 친해졌다.

>여러 교수님들

먼저 7개 수업, 7명의 교수님 중에 질문 등 가장 많이 교류를 한 교수님은 미야베 마사유키 MANABE, Masayuki 真辺将之 교수님이시다. 교수님께 흘림체 질문만 몇 십 번을 한 듯 하다. 새로운 세상을 느끼 해준 교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이것 또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앞으로 이어질 국비 유학 1년 과정으로 학교가 와세다 대학으로 배치 된다면 교수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

##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국비유학 학부 1년

이번 와세다 교환학생 신청 후 얼마 안가서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교환학생 기간이 겹치는 게 아니라 서류 준비 등 신청했다. 7월 초에 최종 합격 결과나 나왔고 2025년 10월부터 내년 9월 즈음까지 약 1년간 유학이 연장 된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 기준으로 어디 학교로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1지망으로 와세다를 선택했다. 만약 와세다에서 1년 더 공부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행복이다!

>조선대학교에서 4학년 마지막 학기 이수

국비유학의 첫 번째 조건이 국비유학이 끝난 후, 원래 소속대학에서 최소 1학기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비유학이 끝나면 조선대학교로 돌아와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할 것이다.

>대학원 진학

조선대학교에서 4학년 마지막 학기 이수 후에는 대학원 진학을 할 것이다. 이번 와세다 교환학생 기간 중 ‘대학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염두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또는 일본문학, 통번역학, 일본어학 전공으로 일본소재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다. 정확한 전공은 아직 미지수다. 만약 일본 소재 대학원을 간다면 ‘국비유학 석사 과정’ 으로 장학금 받으며 대학원을 다닐 것이다.

이번 국비유학 학부 1년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또다른 길이나 멘토, 조언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워킹 홀리데이, 일본 생활 등

만약 미래에 대학원 진학을 안 할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은 당분간 없을 듯 하다.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인과 부딪히며, 일본어를 쓰고, 어떻게든 생활을 하겠지. 일본어를 사용하며 해외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심취하면서.

##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외로움, 혼자라는 것

크게 와닿은 것, 조언하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혼자’ 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외로움을 타는 타입이라고 알게 됐다. 오사카 때는 해외 첫 장기 체류여서 마냥 재미있어서 외로움보단 기대감이 더 컸지만, 이번에는 기숙사 생활이 아닌, 인생 첫 자취여서 부담감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출국 전부터 뼈저리게 느꼈다. 부동산과 연락, 은행에서 엔화 송금, 계약서 작성 등. 입국 후에는 전기수도가스 개시를 위한 전화/예약 절차, 가구 구매, 공공기관 방문 등.

한국에서 외롭다고 느꼈던 건 아마 심심함, 따분함이었겠지. 이번에 일본에서 느낀 것은 정말 외로움 그 자체였다. 마음 속이 공허하고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고싶은 마음.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잡아서 나랑 놀아주세요 하고 싶었다.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소수 강의 수업의 15명 정도의 학생에게 나를 소개하고 간식을 주고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등 노력을 했고 그 다음 주 수업에 손인사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그 이후에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스타그램 교환을 하곤 했지만 학기가 거의 끝나있었다. 아이고. 이런 외로움은 나 자신이 해결해야하는 법. 외롭고 허무/허탈 할 때마다 무언가에 집중했다. 과제/공부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나를 다독이고 스트레스를 풀었다.

>다다익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유학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 같은 경우 저축한 돈, 조선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경제생활을 했지만, 사실 이걸로 너무 부족하다. 외롭거나 허무/허탈할 때 뭐라고 먹거나 영화 감상/쇼핑 등 문화 생활을 했는데 이 때 돈이 빠듯하면 괜히 나 자신에게 실망감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든다.

일본 유학 비용 어느 정도 필요해요? 질문할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하하

>기대치를 매우, 매우! 낮추자

일본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 출국 전부터 기대를 하게 된다. 일본 생활도 물론이거니와 일본어 실력이 향상 되겠지? 하는 등의 기대감도 있고. 윗 부분에서 일본어 실력 향상이 목표가 아니었다, 단지 일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라며 언급했지만, 솔직히 이런 기대/목표가 아예 없진 않았다.

한국어 말 안 하고 일본어로만 말하면 실력이 좋아지겠지?하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안 하거나,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마다 물불 안 가리고 바로 검색하고 예문 읽고, 단어장에 저장하거나 무리하게 일본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등 무리를 했다.

그러다가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는다.

영화관 아르바이트 퇴사, 학교 수업 결석, 우울해서 하루종일 자기,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3주 휴식 등...

로망이 없을 순 없겠지만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분명 알고 있으면서 막상 가면 기대하게 되어버리는 걸~ 우리 화이팅 해보자!

#### 4. 기타사항

교환학생 신청부터 서류 절차, 와세다 대학교과의 연락, 파견 기간 동안, 입국 전·후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주요 공지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국제협력팀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